

강진군, 취약계층 327가구에 ‘따뜻한 겨울’ 선물

강진군은 한국에너지재단과 협력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난방 분야 지원 대상은 총 327가구로, 지난해 270가구보다 57가구 늘었다. 지원 가구에는 주택상태와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단열·창호·바닥 시공과 가스·기름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는 한국에너지재단이 전액 부담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겨울철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줄이고 난방 효율을 높여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철 냉방 지원도 함께 추진됐다.

강진군은 올해 15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지원해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에너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한국에너지재단과 협력해 지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 취약가구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수준을 높이고, 계절에 따른 난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운재 기자



강진군 취약계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 전국장애인체전 3관왕 정대광 선수 격려

무안군은 지난 10월 7일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현경면 마산리 출신 정대광 선수를 격려했다.

정대광 선수는 이번 대회 육상 종목에 출전해 원반던지기과 포환던지기, 창던지기에서 모두 우승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포환던지기와 창던지기에서는 각각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번 성과는 정대광 선수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로, 지역사회에 큰 자긍심을 안겼다. 세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두 종목에서 한국신기록까지 세우며 장애인 체육의 저력을 보여줬다.

김산 무안군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관왕과 두 종목 한국신기록 수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값진 성과를 이뤄낸 정대광 선수에게 군민을 대표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 개최



목포시 '2026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지난 7일 목포국제축구센터 대강당에서 (사)목포시관광협회의와 함께 관광업계 및 관련 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광객을 친절하고 쾌적하게 맞이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업계와 관련 단체가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목포시립합창단의 축하공

연을 시작으로 관광업계 대표 2인의 결의문 낭독, 결의 다짐 퍼포먼스, 관광수용태세 개선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퍼포먼스를 통해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 ▲합리적인 가격과 위생관리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 등을 실천하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함평군은 11일 “2026년 전 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지난 8일 오전 함평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희롱·성폭력 없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교육 강사가 진행한 이날 교육에는 함평군 공직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변인의 개입과 대응 방법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다뤄 공직자들의 이해와 공감도를 높였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지속적인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내 성평등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28일 명인 산조의 밤 개최

영암군은 오는 10월 28일 오후 7시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적중(適中): 명인 산조의 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마지막 수요일은 가야금 중’ 10월 프로그램으로, ‘2026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공연장 협력 예술단체 집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무대에서는 영암의

김죽파류·김병호류를 비롯해 무안의 강태홍류, 장흥의 최옥삼류 등 전남을 중심으로 전승돼 온 주요 가야금산조 류파를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각 류파의 전통을 이어가는 연주자들은 서로 다른 가락과 농현, 장단의 흐름을 통해 가야금산조의 깊이와 다채로운 매력을 들려줄 예정

이다. 공연에는 가야금 연주자 성심은·임재심·성애순·선영숙이 참여하며, 황승옥은 가야금병창 ‘적벽가 중 화통도’를 선보인다. 김동현·박시양은 장구 반주를 맡는다. 관람료는 무료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전통 예술의 가치를 알리고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기철 기자

신안, 이세돌배 전국바둑대회 성료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지난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비금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5회 신안 이세돌배 전국바둑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대회 첫날 열린 개막식에는 이세돌 국수를 비롯해 김현희 신안군 보건소장, 이성호 대한바둑협회 부회장, 조성철 신안군체육회장, 이광순 한국여성바둑연맹 회장, 오규철 심판위원장, 이상훈 九단, 김효정 K바둑 상무 등 주요 내빈과 선수 350여명, 관계자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부, 전남·광주부, 호남학생부, 신안학생부 등 총 1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전국최강부에는 대한바둑협회 랭킹 1위 김정선 선수를 포함해 상위 랭커가 대거 참가해 국내 아마추어 최강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박성태 기자

